

벨직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성경 증거 구절의 사용 비교: 종말론을 중심으로

송영목

(고신대학교, 교수, 신약학)

- I. 들어가면서
- II. 벨직신앙고백서의 종말론을 위한 증거구절 분석
- III.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의 종말론을 위한 증거구절 분석
- IV.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종말론을 위한 증거구절 분석
- V. 비교 및 결론

[초록]

거듭난 성도가 성령님께서 영감 시키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삼위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성령님의 조명으로써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권위를 더 신뢰하게 된다(벨직신앙고백서 5[1561]). 그런데 신앙과 삶의 표준인 성경을 요약한 신앙고백서의 증거구절이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 이유로 신앙고백서의 여백 본문에 표기된 증거구절이 정확한지, 그리고 명시적인 성경 증거구절이 아니더라도 어떤 본문이 암시되었는가를 교의학 즉 조직신학적으로 연구한 바 있다. 또한 구약학자가 이런 신앙고백서의 증거구절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성경 주해적으로 검토한 경우도 간혹 있다. 하지만 다소 의아하게도 신약학자의 관련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인데, 이런 현상은 신앙고백서의 교리가 대체로 구약성경보다는 신약성경과 더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연구의 미진한 틈을 염두에 둔 채, 이 글의 목적은 역사적 개혁교회에 매우 중요한 신앙고백서들인 벨직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1563),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6)의 성경 증거구절의 사용에 나타난 여러 특징을 성경주해를 통해 서로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각 신앙고백서마다 증거구절이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편의상 연구의 범위를 위의 세 신앙고백서의 종말론으로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키워드: 벨직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증거구절, 종말론, 비교

논문투고일 2024.01.20. / 심사완료일 2024.02.27. / 게재확정일 2024.03.05.

I.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성령의 조명으로써 성도는 성경의 권위를 더 신뢰하게 된다(벨직신앙고백서 5조[1561; 이하 BC]).¹ 그런데 성경을 요약한 신앙고백서의 증거구절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이유로 신앙고백서의 여백 본문에 표기된 증거구절이 정확한지,² 그리고 명시적인 성경 증거구절이 아니더라도 어떤 본문이 암시되었는가를 조직신학적으로 연구한 바 있다.³ 또한 구약학자가 이런 증거 구절의 타당성을 성경주해적으로 검토한 바도 있다.⁴ 하지만 신약학자의 관련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 현상은 신앙고백서의 교리가 창조와 도덕법을 포함하는 구약성경보다는 신약성경과 더 긴밀히 연관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의아하다. 이 글의 목적은 BC,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1563; 이하 HC),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6; 이하 WCF)의 성경 증거구절의 사용에 나타난 특징을 성경주해를 통해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편의상 연구 범위는 세 신앙고백서의 결론과 같은 종말론으로 한정한다.

II. 벨직신앙고백서의 종말론을 위한 증거구절 분석⁵

1 B. A. Zuiddam, "Openbaring en Ervaring: 'N Reformatories-Konfessionele Benadering van 2 Petrus 1:16-21," *In die Skriflig* 50/2 (2016), 4-5.

2 BC 11조의 여백(marginal) 본문에 나타난 증거구절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는 BC 37조의 외경 사용도 언급하는 N. H. Gootjes, "Problems with Proof Texts: The Proof Texts of Article 11 of the Belgic Confession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Confession," *CTJ* 36/2 (2001), 373-77을 보라.

3 BC 2-7조의 히브리어 암시는 A. J. Coetsee, "The Book of Hebrews and the Reformed View of Scripture: Hebrews echoed in Belgic Confession Articles 2-7," *In die Skriflig* 54/2 (2020), 2-9를 보라.

4 H. F. van Rooy, "Die Gebruik van die Ou Testament in die Belydenisskrifte, Hermeneuties Beoordeel," *In die Skriflig* 25/1 (1991), 30-31.

5 편의상 본 연구의 신앙고백서 본문과 성경 증거구절은 J. R. Beeke and S. B. Ferguson ed, *Reformed Confessions: Harmonized with an Annotated Bibliography of Reformed Doctrinal Works* (Grand Rapids: Baker, 1999)를 따른다. 귀도 드 브레가 1561년에 원본을 작성한 이래, BC는 몇 차례 개정되었기에, 본문비평이 필요한데 그런 연구는 본 연구의 범위를

BC 37조의 큰 주제는 ‘최후심판’인데, 아래와 같이 세부 주제들로 나뉜다.

1. 재림의 때

모든 피조물에게 알려지지 않은 주님께서 지정해 두신 재림의 때가 이를 것이다(마 24:36; 25:13; 살전 5:1-2; 계 6:11; 행 1:7; 벧후 3:10). 첫 두 증거구절인 마태복음 24:36과 25:13은 인클루시오 구조를 형성하면서, 감람산 강화에서 재림의 날과 때를 알 수 없음을 설명한다. 유사하게, 셋째 증거구절인 데살로니가전서 5:1-2는 4:16-17의 재림 진술을 이어 받아 그 시기를 알 수 없다고 밝힌다. 그리고 넷째 증거구절(계 6:11)은 순교자의 신원(伸冤)의 때인데, 재림 때와 일치하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서 순교자의 신원은 개인의 종말 즉 죽음 때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요한 당시인지 아니면 미래인지 불분명한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순교자들의 수가 찰 시점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처럼 계시록을 미래 재림의 증거구절로 제시하는 경우는 해석상 논란이 되기 십상인데, BC가 작성된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선호한 교회-세상 역사적 해석의 영향은 크지 않은 듯하다. 누가는 예수님의 공 사역으로 회복이 이미 실현되었다는 종말론을 견지하면서도, 장차 있을 우주적 회복이라는 미래 종말론도 포기하지 않는다. 다섯째 증거구절(행 1:7)은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누가-행전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참고. 눅 1:32-33, 68; 2:25, 38; 행 1:6)과 주님의 재림을 통한 만유의 회복을 동일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참고. 행 3:21).⁶ 사도행전 1:6-7에서 주님의 제자들은 이방인 선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국가적 관심에 집착한다. 마지막 증거구절(벧후 3:10)은 도둑 같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때와 동반되는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넘어선다. BC 37조의 원문 구축은 이상웅, “벨직신앙고백서의 역사적 배경과 37조에 담긴 종말론,” 『개혁논총』 36 (2015), 117-20을 보라.

6 J. R. Edwards,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Grand Rapids: Eerdmans, 2015), 62; D. L. Bock, *Acts*, BECNT (Grand Rapids: Baker, 2007), 62; C. S. Keener, *Acts*, Volume 1 (Grand Rapids: Baker, 2012), 683-84.

선택받은 사람들의 수가 차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대로 하늘로부터 육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재림하실 것이다(행 1:11). 사도행전 1:11은 승천과 재림을 동시에 언급하지만, 재림이 구원을 받기로 택정을 입은 사람들의 수가 찰 때 이루어질 것이라는 암시는 없다.

2. 영과 육의 결합

모든 죽은 사람은 부활하기에, 그들의 영혼은 이전의 몸과 연합할 것이다(요 5:28-29; 6:54; 단 12:2;⁷ 욥 19:26-27).⁸ 여기서 증거구절 4개가 부활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혼이 이전 육체와 결합할 것을 언급하지 않는다. 재림 때 살아있을 사람은 죽지 않고 눈 깜짝할 사이에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할 것이다(고전 15:51-53). 이 증거구절은 바울의 부활 진술인데 정확하다.

3. 최후 심판

재림의 예수님은 큰 영광과 위엄으로써 자신이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 이심을 선언하실 것이다(살후 1:7-8; 행 17:31; 마 24:30; 25:31; 유 1:15; 벰전 4:5; 딤후 4:1). 첫째 증거구절(살후 1:7-8)은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복음을 거역한 자들에게 영벌을 내리실 것을 예고하기에 적절하다. 둘째 증거구절(행 17:31)은 성부께서 성자를 통하여 온 천하를 심판하실 날을 결정해 두셨다는 바울의 진술로서 적절하다. 셋째 증거구절(마 24:30)은 미래적으로 재림을 가리킨다고 보는 학자들이 적지 않으나, 상징적 표현인 마태복음 24:29처럼 ‘그 땅’의 ‘그 지파들’인 유대인들이 애곡할 것을 상징적으로 예고하기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가리킨다(참고, 슥 12:10-14).⁹ 다섯째 증거구절(마

7 사 26:19보다 단 1:2는 구약에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가장 분명히 언급한다. T. Longman III, *Daniel* (Grand Rapids: Zondervan, 1999), 284.

8 욥 19:26은 내가 육체 밖’보다 ‘내 육체 안’(in my flesh, NIV) 즉 몸이 죽고 난 후 부활의 몸을 입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적절하다. E. B. Smick, “Job,” in *1 Chronicles-Job*, ed. T. Longman III and D. E. Garland (Grand Rapids: Zondervan, 2010), 788.

25:31)은 문맥상 최후심판에 적절하다(참고. 41절의 ‘영원한 불’과 46절의 ‘영벌’과 ‘영생’). 여섯째 증거구절(유 1:15)은 재림 때의 심판이라기보다, 유다서의 수신자들을 미혹하여 주님의 심판을 받을 거짓 선생들을 가리킨다.¹⁰ 일곱째 증거구절(벧전 4:5)과 여덟째 증거구절(딤후 4:1)은 재림과 심판을 적절하게 언급한다.

그다음 BC는 최후 심판 때에 동반되는 현상을 다룬다. 옛 세상은 불과 화염으로 타서 깨끗하게 된다. 첫 두 증거구절(벧후 3:7, 10)의 공통 이미지인 불사름은 소멸보다는 ‘새 하늘과 새 땅’(벧후 3:13)이라는 정화된 세상에 어울리므로 적절하다. 셋째 증거구절(살후 1:8)은 바로 앞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는 적절한 본문이다.

세상 시작부터 끝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대 심판자 앞에 선다(계 20:12-13; 행 17:31; 히 6:2; 9:27; 고후 5:10; 롬 14:10). 첫째 증거구절(계 20:12-13)은 재림(계 20:10)을 이은 최후심판을 설명한다. 둘째 증거구절(행 17:31)은 바로 앞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적절하다. 셋째 증거구절(히 6:2)은 재림 이후의 영원한 심판을 기독교의 초보로 소개하기에 적절하며, 넷째 증거구절(히 9:27)도 마찬가지이다. 다섯째 증거구절(고후 5:10)은 재림 이후에 부활의 몸을 덧입기 전에(고후 5:2-4),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 위해 최후심판이라는 종말론을 기억할 것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 여섯째 증거구절(롬 14:10)에서도 바울은 최후 심판대라는 종말론이 동기가 된 형제를 향하여 비판하는 행위를 삼가야 하는 현재적 윤리를 교훈한다.

모든 사람은 천사장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소환된다(고전 15:42; 계 20:12-13; 살전 4:16). 첫 두 증거구절(고전 15:42; 계 20:12-13)은 천사장의 소리나 하나님의 나팔과 무관하다. 마지막 증거구절(살전 4:16)은 재림 시 동반되는 소리를 언급하기에 적절하다.

9 R. T. France, *The Gospel of Matthew*, NICNT (Grand Rapids: Eerdmans, 2007), 925; 양용익,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6), 412.

10 D. Keating, *First and Second Peter, Jude*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1), 210; 유 15를 딤후 4:1과 벧전 4:5 그리고 계 6:10과 연결하여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으로 보는 .G. L. Green, *Jude & 2 Peter*, BECNT (Grand Rapids: Baker, 2008), 106.

양심의 책들이 개봉되며, 이 세상에서 선이건 악이건 행한 대로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다(계 20:12-13; 고전 4:5; 롬 14:11-12; 욥 34:11; 요 5:24; 단 12:2; 시 62:12;¹¹ 마 11:22; 23:33; 요 5:29; 롬 2:5-6; 고후 5:10; 히 6:2; 9:27). 14개 증거구절 가운데 어떤 구절도 최후 심판대에 펼쳐질 책들을 ‘양심의 책들’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둘째 증거구절인 고린도전서 4:5의 ‘마음의 뜻’(τὰς βουλάς τῶν καρδιῶν)은 ‘마음의 목적, 의도, 바라는 바’로 번역될 수 있기에 구체적으로 양심만 가리키지 않는다.¹² 열한 번째 증거구절인 로마서 2:5는 하나님의 심판의 맥락에 등장하며, 그 구절의 ‘그 마음’(καρδία)은 인간의 사고와 의지 그리고 감정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성향을 가리킬 수 있지만 증거구절로 언급되지 않은 근접 문맥의 로마서 2:15의 ‘양심’(συνείδησις)과 동일시하기 어렵다.¹³

사람은 언어 범죄(idle word)에 대해 하나님께 직고(直告)해야 한다(롬 2:5; 유 1:15; 마 12:36). 첫째 증거구절(롬 2:5)은 언어상 범죄나 직고를 언급하지 않는다. 유다서 1:15는 주님을 거스른 완악한 말을 언급하기에 비교적 적절하며, 마태복음 12:36의 무익한 말과 심문은 증거구절로 가장 적절하다.

사람의 비밀과 위선은 드러난다(고전 4:5; 롬 2:1-2, 16; 마 7:1-2). 모든 증거구절에서 ‘위선’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마태복음 7:1-2와 로마서 2:1-2에 ‘비밀’이 언급 안 된다.

이 심판은 악하고 불경한 자들에게 매우 끔찍하고 두려운 것이다(계 6:15-16; 히 10:27). 계시록 6:15-16은 악한 자들을 향한 끔찍한 심판을 설명하지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주 내용으로 삼는 계시록에서 최후심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참고, 계 1:1).¹⁴ 하지만 히브리서 10:27은 악한 자들이 맹렬한

11 시 62:12의 하나님의 갚으심은 최후 심판에 국한되지 않는다(참고, 시 1:6; 롬 2:6-9). W. A. VanGemeren, *Psalms* (Grand Rapids: Zondervan, 2008), 487.

12 D. E. Garland, *1 Corinthians*, BECNT (Grand Rapids: Baker, 2003), 128.

13 롬 2:15에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양심은 마음과 동일하지 않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척도로 기능한다. R. N. Longenecker, *The Epistle to the Romans*,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16), 250, 277; T. R. Schreiner, *Romans*, BECNT (Grand Rapids: Baker, 1998), 123.

14 K. L. Gentry Jr., *The Divorce of Israel: A Redemptive-Histor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Revelation*, Volumes 1 (Dallas: Tolle Lege, 2017), 639; P. J. Leithart,

불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최후 심판을 무서운 마음으로 기다린다고 적절하게 설명한다.

이 심판은 의인과 택자에게 바람직하고 위로가 되는 이유는 그들의 충만한 구원이 완전하게 되며, 그들의 수고와 고통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기 때문이다(눅 21:28; 요일 3:2; 4:17; 계 14:7; 살후 1:5-7; 눅 14:14). 첫째 증거구절인 누가복음 21:28의 ‘속량’(ἀπολύτρωσις)은 문맥상 재림보다는 돌 성전의 파괴 상황이다(참고. 20절의 ‘예루살렘’). 둘째 증거구절인 요한일서 3:2는 재림으로써 성도가 완전하게 될 영화 상태를 묘사하고, 셋째 증거구절인 요한일서 4:17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은 물론 재림 이후의 상황에도 성도로 하여금 담대함을 준다는 사실을 설명한다(참고. 요일 2:28).¹⁵ 넷째 증거구절인 계시록 14:7은 ‘영원한 복음’(계 14:6)의 한 요소인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미 ‘이미 도달한 심판의 때’(ἤλθεν ἡ ὥρα τῆς κρίσεως)를 최후 심판으로 보기 어렵다.¹⁶ 다섯째 증거구절인 데살로니가후서 1:5-7은 심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 그리고 재림 때에 안식이라는 공의로운 보상을 포괄적으로 진술하기에 적절하다. 그런데 마지막 증거구절인 누가복음 14:14는 안식 일에 예수님을 초대하러 바리새인이 빈자와 병자를 식탁으로 초대하면 그는 복이 있을 것을 설명하는데, 재림과 최후심판만 가리키는 본문은 아니지만 최후심판의 취지를 뒷받침하기에 비교적 적절하다.¹⁷

의인들의 무죄함은 모두에게 알려지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끔찍하게 보응하시는 것을 볼 것이다(단 7:26). 유일한 증거구절인 다니엘 7:26에 의인의 무죄함이 증명된다는 내용은 없으며, 악인에게 내려질 심판이 재림 때에 발생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왜냐하면 다니엘 7장의 바다에서 올라온 넷째 짐승은 로마제국을 가리키기 때문이다(참고. 단 7:3, 17, 23).¹⁸

Revelation 1-11 (London: T&T Clark, 2018), 316.

15 K. H. Jobes, *1, 2, & 3 John*, ZECNT (Grand Rapids: Zondervan, 2014), 204-205; G. W. Derickson, *1, 2 & 3 John*, EEC (Bellingham: Lexham Press, 2014), 465-66.

16 K. L. Gentry Jr., *The Divorce of Israel: A Redemptive-Histor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Revelation*, Volumes 2 (Dallas: Tolle Lege, 2017), 307; P. J. Leithart, *Revelation 12-22* (London: T&T Clark, 2018), 94.

17 Edwards,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419.

이 세상에서 사람을 잔인하게 박해하고 괴롭히며 고문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응이 임한다(마 25:46; 살후 1:6-8; 말 4:3). 첫째 증거구절인 마태복음 25:46에 악한 자들과 영벌은 언급되지만, 악행의 목록은 없다. 둘째 증거구절인 데살로니가후서 1:6-8은 환난을 초래한 자들에게 재림의 주께서 형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마지막 증거구절인 말라기 4:3의 악인을 향한 형벌은 재림으로 국한될 맥락인지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구약의 심판은 일차적으로 선지자 당시에 성취되었으며(참고. 말 4:3의 유대인을 가리키는 ‘너희’),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되다가 완성은 재림까지 확장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¹⁹

악인들은 자신의 양심의 증거에 의해 유죄로 입증된다(롬 2:15).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2:15에서 최후심판을 다루기보다, 이방인 속에 있는 양심은 모세의 율법에 일치하는 도덕적 규범을 알고 옳은 것을 추구하려고 내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²⁰

악인은 영원한 불 안에서 죽지 않고 고통을 겪는다(계 21:8; 벧후 2:9). 계시록 21:8은 영원한 유향불 못의 심판을 묘사하지만, 베드로후서 2:9에는 불을 언급하지 않고 형벌과 심판만 묘사한다. 그리고 악인들의 ‘고통’은 계시록 21:8이 아니라 20:10에 나타난다.

영원한 불 못은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다(말 4:1; 마 25:41). 마태복음 25:41은 적절한 증거본문이다. 그런데 말라기 4:1의 용광로 불같은 심판의 날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위해 준비되는데, 재림의 날이 맞는가? 말라기 3-4장의 맥락에서 하나님이 정해두신 날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심판 받을 날이다(참고. 말 3:17).²¹

그러나 신실하고 선택받은 자들은 영광과 명예로 관 씌워진다(마 25:34; 13:43). 최후 심판의 맥락에 위치한 마태복음 25:34에 ‘복’, ‘나라’, ‘상속’은

18 Contra 네 짐승을 포로기부터 역사의 정점(재림)까지 존재하는 악한 나라들로 보는 Longman III, *Daniel*, 190.

19 D. W. Baker, *Joel, Obadiah, Malachi* (Grand Rapids: Zondervan, 2006), 299.

20 Longenecker, *The Epistle to the Romans*, 277; Schreiner, *Romans*, 123.

21 Baker, *Joel, Obadiah, Malachi*, 297.

언급되지만, ‘영광’과 ‘명예’와 ‘관을 씌’는 나타나지 않는다. 최후 심판의 문맥 안에서 마태복음 13:43은 의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달과 같이 빛날 것을 설명하지만, ‘영광’, ‘명예’, ‘관을 씌’는 명시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천사들 앞에서 의인들의 이름을 시인하신다(마 10:32). 마태복음 10:32는 적절하지만, ‘천사들’은 언급되지 않는다(비교. 눅 12:8의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은 의인들의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신다(사 25:8; 계 21:4). 이사야 25:8은 야웨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때 눈물을 씻어주실 것을 예언하는데, 그 구절은 계시록 21:4의 암시이므로 이 둘은 적절한 증거구절들이다.

세상의 재판관과 관원 앞에서 이단적이고 불경하다고 판단 받아 내쫓긴 의로운 남은 자들의 대의(cause)는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대의임이 드러난다(사 66:5).²² 여기서 이사야 66:5의 구원계시의 점진적 발전을 고려한 기독교론적 해석이 나타난다. 이사야는 야웨만 언급하지만 BC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힌다.

사람의 마음에 결코 들어간 적 없는 그런 영광을 그리스도인이 소유하도록 하나님은 은혜로운 상을 주실 것이다(사 64:4; 고전 2:9). 이사야 64:4는 주의 강림을 예언하는데, BC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기독교론적 성취로 해석한다. 하지만 이사야 64:3-4는 과거에 산과 바다를 흔들고 가르쳤던 하나님께서 이사야 당시에 다시 강림하시기를 소망하기에, 재림과 직결되지 않는다.²³ 고린도전서 2:9는 이사야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신 야웨의 사역을 회상하는 이사야 64:4와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을 포함하여 더 확장된 종말론적 새 창조를 예언하는 65:17를 복합적으로 인용한다.²⁴ 그런데 고린도전서 2:9는 최후심판 때에 주어질 영광이 아니라,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지혜로써 영광의 주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설명이다.²⁵

22 J. N. Oswalt, 『이사야』, *Isaiah*, 장세훈·김홍련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7), 926.

23 Oswalt, 『이사야』, 897-98.

24 Contra 사 65:17의 신천신지는 묵시적 이미지로 묘사되었으나 문자적 의미의 새로운 우주로 이해하는 오성호, 『56-66장을 중심으로 본 이사야서의 종말론 신학』 (서울: 솔로몬, 2012), 328.

25 A. C. Thiselt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00), 252.

우리는 그런 위대한 날이 임하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즐기기를 열망하며 기대한다(히 10:36-38).²⁶ 히브리서 10:36-38은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받도록 권면하기에 적절한 증거본문이다.

4. 분석

먼저 구약 증거구절의 주해 및 활용과 관련하여, BC는 구약 증거구절을 직접 인용하거나, 더 큰 단락을 언급하기도 한다.²⁷ BC 37조 최후심판의 구약 증거구절은 10개이다(참고. 단 12:2는 2회). 이 가운데 인용은 없으며 단락을 암시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죽은 자의 영혼은 이전의 몸과 결합함(욥 19:26-27; 단 12:2). 선악 간에 심판하심(욥 34:11; 시 62:12; 단 12:2), 상을 주시는 하나님(사 64:4), 눈물을 씻어주심(사 25:8), 악인이 당할 수치(사 66:5), 마귀와 마귀 추종자들의 지옥행(말 4:1), 교회 박해자의 지옥행(말 4:3), 그리고 의인은 심판당할 악인을 바라봄(단 7:26)이다. 그런데 구약 증거구절에 구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구원제시의 발전은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구약 증거구절을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최후심판을 예고하는 증거구절로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은 합당하다. 실제로 BC는 구약 본문들의 문맥과 상황에서 일차적으로 성취될 사항을 건너뛰면서, 곧바로 최후심판(욥 34:11; 시 62:12; 단 7:26; 12:2; 말 4:3)과 지옥(말 4:1), 의인이 받을 위로와 상(사 25:8; 64:4)으로 직결시킨 문제점을 노출한다.²⁸

²⁶ BC 5조는 히브리서를 바울서신에 포함하기에, 16세기에 히브리서를 바울서신의 관점에서 해석 했는가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²⁷ 구약의 인용은 신 12:32(BC 7), 창 1:26-27, 3:22(BC 9), 미 5:1(BC 10), 렘 33:15와 사 11:1(BC 19), 사 53:5, 7, 9와 시 69:5(BC 21), 그리고 시 143:2(BC 23)이다. 구약 단락을 언급한 경우는 시 62:10(BC 7), 창 1:1(BC 10), 창 3:15(BC 17), 그리고 시 32:2(BC 23)이다. 그런데 BC 7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지만 인용한 신 12:32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BC 21조는 사 53:5의 '그를'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어 인용한다. BC 21조가 인용한 시 69:5는 3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1인칭으로 나타난다. Van Rooy, "Die Gebruik van die Ou Testament in die Belydenisskrifte, Hermeneuties Beoordeel," 33-34.

²⁸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방법들 중에 '통시적 주제의 연관성'이 있지만, 이 경우 그런 주제들이

그리고 감람산강화와 요한계시록 증거구절의 주석 및 활용과 관련하여, BC 37조에 증거구절로 사용된 감람산강화의 본문들 중에서 재림의 날을 알 수 없음(마 24:36), 최후심판(마 25:31), 악인에게 임할 보응(마 25:46), 그리고 의인에게 주어질 영광과 명예(마 25:34)는 적절하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예수님에 대한 묘사로 이해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마 24:30).

요한계시록 증거구절의 개별 본문은 총 9개이다(계 1:7; 6:11, 15-16; 14:7; 20:12-13[x3]; 21:4, 8).²⁹ 재림의 때를 알 수 없음(계 1:7; 6:11), 최후심판(계 20:12-13), 악인이 최후 심판의 두려움을 느낌(계 6:15-16), 영원한 지옥 형벌(계 21:8), 행한 대로 최후심판을 받음(계 14:7), 최후심판에 성도의 눈물을 씻는 위로이다(계 21:4). BC 37조에 계시록 1장, 6장 그리고 14장에서 요한 당시에 속히 성취될 과거론적 해석보다는 재림을 찾는 미래적 해석 경향이 나타난다.³⁰ 하지만 BC가 계시록 20:12-13에서 미래적인 최후심판을 찾는 것은 정당하다. 유사하게 예수님의 재림 증거구절에 마태복음 24:30도 미래적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이전에 만들어진 어떤 신앙고백서 혹은 학자들의 영향인지 분명하지 않다. BC가 천주교의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간주한 칼빈의 전통을 따랐다면, 미래적 해석이 아니라 세상-교회 역사적 해석을 추구했을 것이다. 그런데 계시록의 예언이 신약의 전체 역사에서 성취된다는 역사적 해석은 미래적 해석과 재림 직전에 성취된다는 점에서 중복된다.³¹

그리스도에게로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정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S. Greidanus,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Preaching Christ from the Old Testament*, 김진섭 외 역 (서울: 이레서원, 2003), 389.

29 클라렌스 바우만은 BC 37조의 요한계시록 증거 구절에 계 3:5(심판 때 예수님은 택자의 이름을 인정하심), 7:17(눈물을 씻어주심), 18:20(악인들에게 무서운 보복이 임함), 22:12(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심) 등을 추가하여 총 13개를 제시한다. 그리고 바우만은 박해 받던 귀도 드 브레(d. 1567)가 자신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성도를 향한 사탄의 미움과 박해를 설명하기 위해 계 12:7, 12도 인용한다. C. Bouwman, 『벨직신앙고백해설』, *Notes on the Belgic Confession*, 손정원 역 (부산: 도서출판 신언, 2007), 487-88.

30 J. A. du Rand, *A-Z van Openbaring* (Vereeniging: CUM, 2007), 128, 288; C. R. Koester, *Revel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4), 229, 620. Koester는 계 14:7에서 로마의 멸망을 찾지만 재림과 연결하지 않는다. Contra Gentry Jr., *The Divorce of Israel*, Volumes 1, 273, 618.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주해적 특성을 따르는 여부와 관련하여, BC가 작성될 무렵, 루터와 칼빈은 풍유적 해석과 영적 해석을 반대하면서 문법-역사적으로 명료한 의미를 찾아 기독교론적인 신학적 해석으로 연결하는 데 주력했다.³² 1556-1558년경 귀도 드 브레는 제네바에서 칼빈과 베자로부터 신학을 배웠고, 칼빈과 서신 교환도 했는데, BC 37조의 구약 증거구절은 구약의 문법-역사적 해석을 적절히 시도한다.³³ 귀도는 종교개혁자들처럼 성경의 문법적 의미를 찾는데 관심을 보이지만, 종종 더 깊은 의미를 탐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BC 34조에서 구약의 세례에 관하여 모형론적이고 풍유적인 진술을 한다.³⁴ BC 37조에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가? 적어도 구약 증거구절들에서 구원제시의 발전을 찾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BC는 신약의 빛에서 구약을 해석하여 적용한다. 예를 들어, BC 10조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루면서 창세기 1:1은 요한복음 1:1, 히브리서 1:2, 그리고 골로새서 1:6과 더불어 읽힌 후에 그리스도에게 적용된다. 여기서 신약 본문은 구약 본문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열쇠가 된다.³⁵ 이것은 ‘그리스도 완결적 해석’의 예이다. 이런 현상은 BC 37조의 증거구절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종교개혁자들에 흔히 볼 수 있듯이, 구약의 메시아적 해석도 BC에 나타난다. BC 21조에서 시편 69:6은 요한복음 15:25를 통해 메시아적으로 해석된다.

31 BC의 계시록 해석 경향은 6세기 동방교부 가이사랴의 안드레아스의 미래적이며 역사적인 해석과 유사하다. 참고. 송영목, “교부들의 요한계시록의 주석 평가: 빅토리누스와 오이쿠메니우스를 중심으로,” 『ACTS 신학저널』 50 (2021), 130-88. 참고로 칼빈이 작성한 갈리칸고백서 (*Confessio Gallicana*, 1559)가 BC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BC 1조의 하나님과 2조의 하나님의 이중계시는 갈리칸의 용어가 유사). 그러나 BC 37조 종말론의 내용은 갈리칸고백서에는 종말론이 독립된 항목으로 되어 있지 않기에, 귀도 드 브레가 칼빈에게서 독립한 면도 있다. Strauss, “John Calvin and the Belgic Confession,” 506.

32 Van Rooy, “Die Gebruik van die Ou Testament in die Belydenisskrifte, Hermeneuties Beoordeel,” 30-31.

33 S. A. Strauss, “John Calvin and the Belgic Confession,” *In die Skriflig* 27/4 (1993), 503, 506.

34 Van Rooy, “Die Gebruik van die Ou Testament in die Belydenisskrifte, Hermeneuties Beoordeel,” 37. 참고로 개혁주의 구약학에서 임의적인 모형론과 풍유적 해석에 대한 반대 입장은 F. N. Lion-Cachet, “Die Christusgetuigenis in die Ou Testament: ‘N Belydeniswerklikheid,” *In die Skriflig* 25/1 (1997), 98-112를 보라.

35 Van Rooy, “Die Gebruik van die Ou Testament in die Belydenisskrifte, Hermeneuties Beoordeel,” 43.

요한복음 15:25는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했다”로 시작하지만, BC 21조는 “He returned what He did not rob”라고 인용한다. 따라서 BC 21조에서 신약 증거본문의 첫째 부분을 메시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둘째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확장됨을 분명히 알 수 있다.³⁶ BC 37조에도 이런 메시아적 해석과 변용이 나타나는가? 이런 변용은 구약 증거구절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

BC 37조는 ‘재림의 때’와 ‘영과 육의 결합’을 ‘최후심판’과 더불어 강조한다. 그리고 BC 37조는 다양한 종말론적 주제들을 다루지 않지만, 최후심판과 연관된 세부 주제들인 영벌, 재림의 날을 모름, 심판받을 범죄들, 최후심판이 악인에게는 보응하지만 의인에게는 위로가 됨, 마귀도 들어갈 볼 못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³⁷

III.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의 종말론을 위한 증거구절 분석

1.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7-58문답

HC 제57문답의 ‘몸의 부활이 주는 위로’는 “이 생 이후에 나의 영혼도 즉시 머리아신 그리스도에게 들려 올라간다(눅 23:43; 빌 1:23)”라고 설명한다. 누가복음 23:43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한 편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신 내용이다. 바울은 빌립보서 1:23에서 세상을 떠나 즉 죽어서 자신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더 나은 상태를 소망을 피력한다. 그러므로 두 구절은 증거구절로 적절하다.

나의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켜져 나의 영혼과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36 구약 증거구절을 사용할 때, 그 본문의 역사적 상황과 성경의 계시 역사적 진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오용에 빠진다. 그리고 계시역사의 발전을 무시한 채, 구약과 신약을 동일선상에 두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Van Rooy, “Die Gebruik van die Ou Testament in die Belydenisskrifte, Hermeneuties Beoordeel,” 44-45.

37 이상웅, “벨직신앙고백서의 역사적 배경과 37조에 담긴 종말론,” 133-34.

영광스런 몸처럼 될 것이다(고전 15:53; 롬 19:25-26). 고린도전서 15:53은 부활하여 썩거나 죽지 않는 몸을 입을 것을 설명한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부활의 몸과 영이 결합할 것을 언급하지 않지만, 그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롬 19:25-26은 가족이 벋김을 당한 뒤에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욕의 고백이다. 하지만 이 구절은 육과 영의 결합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HC 58문답의 영생이 주는 위로에서 “나의 마음은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느낀다(고후 5:2-3, 6; 롬 14:7).”라고 설명한다. 고린도후서 5:2-3, 6은 성도의 ‘영혼’과 ‘기쁨’을 언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로마서 14:7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 살거나 죽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기에, 영생이 주는 위로와 기쁨과 직결되지 않는다.

성도는 이 생 이후에 완전한 구원을 상속한다(시 10:11). 시편 10:11은 악인의 포악으로 고난당하는 의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답답함을 토로하기에, 죽음 이후에 상속할 구원과 무관하다.

완전한 구원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한다(고전 2:9). BC 37조의 최후심판에도 증거구절로 나타나는 고린도전서 2:9는 이사야 64:4와 65:17을 복합적으로 인용한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9는 최후심판 때에 주어질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남은 자들이 주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섬길 수 있는 지혜에 대한 설명이다.

2.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3문답

HC 123문답을 종말론에 포함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육신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써 천국을 도래시키신 이후로 재림하셔서 천국을 완성하실 때까지 만유의 회복이 지속되며, 중요한 미래 종말론적 본문들을 증거본문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³⁸ HC 제123문 주기도문 중 둘째 간구 “나라가 임하옵시며”는

38 참고. J. van Bruggen,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Aantekeningen bij de Heidelbergse*

무엇인가?(참고. 마 6:10). “주님께 더 복종하도록(마 6:33),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 자신을 더욱 더 당신에게 복종시키시며”이다(시 119:5). 시편 119:5에서 시인은 자신의 길을 굳게 정하셔서 주님의 율례를 지키게 해달라고 간구한다. 따라서 ‘성령’과 ‘복종’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 증거구절들은 재림과 최후심판처럼 미래 종말론을 지지하지 않는다.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증대시키시며”(시 51:18)에서 증거구절 시편 51:18은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인데, 범죄자 다윗이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므로 미래 종말론과 무관하다. 또한 “사탄의 사역들을 파괴하시고”(요일 3:8; 롬 16:20)도 예수님의 초림으로 도래한 사탄의 패배라는 현재 종말론을 강조한다.

“당신을 대적하여 자신을 높인 모든 악을 파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계획을 파괴하시고, 천국이 완전히 임할 때까지 그러하게 하소서”(계 22:17, 20). 계시록의 두 증거구절의 취지는 성령과 어린양의 신부는 속히 갈 것을 약속하신 주 예수님의 오심을 간구한다. 이 증거구절들에 악의 파괴와 천국의 완성은 암시되어 있기에, 그런 명시적인 내용을 찾을 수 없다.

“거기서 당신은 만유 안의 만유가 되실 것입니다”(고전 15:15, 28). 고린도전서 15:15는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역사적 사실의 확실성을 강조하기에, 증거구절로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뒤 따르는 고린도전서 15:28은 예수님께서 만유를 복종하게 하실 때, 성부께서 만유의 주로서 계실 것을 적절히 설명했다.

3. 분석

HC 종말론에서 구약 증거구절은 3개뿐인데(욥 19:25-26; 시 10:11, 51:18), HC의 종말론을 위해 할애된 분량에 비해서 적다고 할 수 없다. 욥 19:25-26은 영과 육의 결합을 언급하지 않으며, 시편 10:11은 의인이 죽은

Catechismus, 김현수·성희찬 역 (서울: 성약, 2020), 484; 강미량,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교육을 통한 개혁주의 종말신앙 형성,” 『개혁논총』 30 (2014), 275-80.

후에 상속할 구원과 무관하다. 그리고 시편 51:18은 미래 종말론과 무관하다.

HC는 특이하게도 감람산강화를 증거구절로 사용하지 않았다. 요한계시록의 증거구절은 적절하게 활용되었지만 두 개뿐이라는 사실이다(계 22:17, 20). 즉 BC 37조의 계시록 아홉 본문과 비교하면 부족하다. HC 123문답의 주기도문 둘째 간구의 방점은 천국의 완성인가, 아니면 실현된 종말론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염두에 두셨는데, HC 123문답도 이 점을 잘 반영한다. HC의 작성자 중 한 명인 우르시누스(Z. Ursinus)도 HC의 종말론을 성도에게 영생은 이미 주어졌지만 완성은 내생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도 금생에 이루어지고 내생에서 교회가 영화롭게 되어 완전하게 됨으로써 궁극적 완성에 이르게 된다고 해설했다.³⁹

IV.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종말론을 위한 증거구절 분석

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2장⁴⁰

39 Z.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The Commentary of Dr. Zacharias Ursinus on the Heidelberg Catechism*, 원광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6[1562]), 527, 985-88.

40 WCF 32-33장의 종말론 증거구절들은 1647년 3월 5일 회의에서 결정되었는데, 종말론 논의에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밝히는 WCF 25장 '성도의 교통'도 추가하여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상용,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종말론," 『한국개혁신학』 44 (2014), 105-43을 보라.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1세기 가현설주의자를 가리키므로 본 연구에서 WCF 25:6은 제외한다(요일 2:18, 22; 요이 1:7). 그런데 HC 123문답처럼 WLC 191문답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는 WCF의 종말론 논의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가? 191문답은 미래 종말의 징표들로서 복음의 온 세계적 전파를 통한 유대인들의 민족적 개종과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돌아옴을 제시하는데, 칼빈이나 루터와 달리 청교도 총대들이 선교적 사명과 유대인들의 회심을 결부한 것은 특이하다. 그런데 복음의 전 세계적 전파는 마 24:14를, 유대인의 거국적 개종은 사 59:20-21(구속자가 시온에 임함)과 사 27:9-13(이방국가들에 쫓겨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옴)을 인용한 롬 11:26을, 그리고 충만한 이방인들의 개종은 롬 11:25를 증거구절로 삼은 듯하다. 마 24:14는 미래 종말론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의 징조이며, 롬 11:26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절정이나 재림 직전에만 국한되지 않고 바울 당시에 구원받기로 선택된 유대인들의 회심과도 연관되며, 롬 11:25의 이방인의 개종도 재림 직전의 상황으로만 볼 이유는 없다(참고. 롬 11:30의 '이제'). 롬 11:26의 이사야 인용들은 재림 직전의 상황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당대에서 멀지 않은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으로 1차적으로 성취되었다. 양용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WCF 32장은 ‘죽음 이후의 사람의 상태와 몸의 부활에 대하여’이다. WCF 32:1은 사람의 몸은 죽은 후 흠으로 돌아가 썩을 것이라고 밝힌다(창 3:19; 행 13:36). 창세기 3:19는 범죄한 아담 부부에게 내려진 수고와 죽음에 대한 심판 선언으로 죽음과 몸의 썩음에 대한 적절한 증거구절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3:36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죽어 장사지낸 바 되어 썩어버린 다윗을 대조한 설교로서 적절한 증거구절이다.

사람의 영혼은 죽거나 자지 않고, 죽지 않는 본질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눅 23:43; 전 12:7). 누가복음 23:43은 골고다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에 회개했던 강도의 영혼이 하나님(42절의 ‘당신의 나라’, 43절의 ‘낙원’)께로 돌아간다는 사실과 영혼이 중간상태에서 죽거나 수면 상태에 빠지지 않음을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전도서 12:7은 사람이 노쇠하여 죽은 후 그의 영혼은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히기에 적절한 증거구절이다.⁴¹

죽은 성도의 살아있는 영혼은 완전히 기록해져서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되어, 거기서 그들의 몸이 온전히 구속될 때까지 기다린다(히 12:23; 고후 5:1, 6, 8; 빌 1:23; 행 3:21; 엡 4:10). 성도가 죽으면 영혼은 즉각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머무시는 높은 하늘에서 완전한 상태로 있으면서, 재림으로써 몸의 구속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린다. 첫째 증거구절(히 12:23)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모세의 인도로 시내 산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이미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소속되어 있음,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장자들처럼 상속자로서 하늘에 왕권을 두고 살고 있다고 밝힌다(참고. 빌 3:20; 히 12:28).⁴² 따라서 히브리서 12:23은 성도가 죽은 후에 영혼이 하늘로 옮겨질 것을 가르치는 증거본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둘째 증거구절(고후 5:1)은 하늘로부터 오는 성도의 처소인 ‘하늘에 영원한 집’을 언급하는데, 죽은 성도의 영혼이 처하게

407; J. A. Fitzmyer, 『로마서』, *Romans*, 김병모 역 (서울: CLC, 2015), 2025. Contra Longenecker, *The Epistle to the Romans*, 898; Schreiner, *Romans*, 620.

41 I. Provan, *Ecclesiastes/Song of Songs* (Grand Rapids: Zondervan, 2001), 218.

42 P. Ellingworth, *The Epistle to the Hebrews*,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93), 679; P. T. O'Brien, *The Letter to the Hebrews* (Grand Rapids: Eerdmans, 2010), 485.

될 상황에 국한되는 본문이 아니다. 여기서 ‘장막의 집’(οἰκία τοῦ σκήνου)은 영혼보다는 육체에 대한 은유로 적절하다.⁴³ 이 사실은 ‘몸’(σῶμα)을 언급하는 셋째와 넷째 증거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후 5:6, 8). 다섯째 빌립보서 1:23은 바울이 죽어 그의 영혼이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것을 기대하는 내용이므로 증거구절로서 적절하다. 여섯째 증거구절(행 3:21)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이나 영혼 뿐 아니라 만유를 회복(ἀποκατάστασις)하고 계심을 설명한다. 따라서 죽은 성도의 영혼이 낙원에서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내용과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곱째 증거구절(엡 4:10)은 지상에서 공사역을 마치신 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통치를 만물 안에 충만하게 하신다고 밝히기에, 하늘에 올라간 완전한 영혼의 상태를 가리키지는 않는다.

악인들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 고통과 극심한 어둠 중에 남아 대 심판의 날까지 갇혀있다(눅 16:23-24; 행 1:25; 유 1:6-7; 벰전 3:19). 첫째 증거구절(눅 16:23-24)은 비유인데, 죽은 부자의 영혼은 고통의 장소인 하데스(ᾅδης)에서 괴로워하므로 적절하다. 사도행전 1:25는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가 자살 후에 ‘자신의 곳으로’ 갔다고 밝힌다. ‘자신의 곳’(τὸν τόπον τὸν ἴδιον)은 주님의 ‘자신의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며 새로운 공동체에 속한 11제자와 달리(참고, 눅 18:28),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받을 탐낸 불신자가 가서 고통을 당하는 형벌의 장소이다.⁴⁴ 셋째 증거본문인 유다서 1:6-7은 타락한 천사들은 결박되어 ‘흑암’에 던져졌고, 성적 타락에 빠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설명하기에 증거구절로 적절하다. 마지막 증거구절(벰전 3:19)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던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악한 자들의 영들에게 선포하시는 내용이다(참고, 벰전 3:18, 22).⁴⁵ 베드로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노아 때 홍수로 심판을 받은 자들로 대변된다(벰전 3:20). 베드로전서 3:19는 유다서 6-7과 더불어 악인들의 영혼이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가르치기에 적절한

43 M. J. Harris,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05), 371.

44 Keener, *Acts*, Volume 1, 774; Bock, *Acts*, 89.

45 J. H. Elliott, *1 Peter*, Anchor Bibl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653; K. H. Jobes, *1 Peter*, BECNT (Grand Rapids: Baker, 2005), 245.

증거본문이다.

재림 때에 살아 있을 사람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라고 설명한다(살전 4:17; 고전 15:51-52).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지상에 생존해 있는 성도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로 들려올라갈 것이다(살전 4:17). 그리고 예수님께서 잠자지 않는 성도 즉 육체적으로 죽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될 것이다(고전 15:51-52). 바울이 제시한 이 두 구절은 재림 당시에 생존한 성도의 완전한 변화를 가르치기에 적절하다.

이미 죽은 자들은 몸이 다른 성질을 가질지라도, 결코 다른 몸이 아닌 이전과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여, 다시 그들의 영혼과 영원히 결합될 것이다(욥 19:26-27; 고전 15:42-44). 여기 WCF 32:2는 HC 57문의 “나의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켜져 나의 영혼과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몸처럼 될 것이다(고전 15:53; 욥 19:25-26).”와 유사하다. 고린도전서 15:42-44는 부활하여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육체를 덧입음을 설명하는 적절한 증거구절이다. 그러나 욥기 19:26-27은 부활을 가리키지만, 육과 영의 결합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WCF 32:3은 불의한 자들의 몸은 치욕을 당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할 것이나, 의로운 자들의 몸은 영광을 얻기 위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스런 몸을 닮게 된다고 설명한다(행 24:15; 요 5:28-29; 고전 15:43; 빌 3:21). 불의한 자들의 심판의 부활과 의인들의 생명의 부활은 사도행전 24:15와 요한복음 5:28-29가 언급한다. 고린도전서 15:43과 빌립보서 3:21은 의인들이 부활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고 강한 몸을 입을 것을 언급한다. 그러므로 네 구절 모두 증거구절로 적합한데, 의인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악인의 부활보다 더 강조된다.

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3장

WCF 33장은 ‘최후심판에 대하여’이다. WCF 33:1은 성부는 성자로 하여금 의로써 세상을 심판할 날을 정하셨다고 설명한다(행 17:31). 이 증거구절에

따르면,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장차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강조했다.

성부는 모든 권세와 심판은 성자에게 맡기셨다(요 5:22, 27). 두 증거구절에 따르면, 성부는 아들 즉 인자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두 증거본문 사이의 요한복음 5:22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설명하므로, 최후심판의 문맥에 적절하다.

그날에는 배교한 천사들도 심판을 받는다(고전 6:3; 유 1:6; 벧후 2:4). 고린도 전서 6:3은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그리스도인이 천사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스도인은 장차 재림의 때에 악한 천사를 심판할 것이다.⁴⁶ 따라서 이 구절은 성도가 제외된 채로 하나님께서 배교한 천사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취지만 가르치지 않는다. 유다서 1:6과 베드로후서 2:4는 타락한 천사들이 이미 지옥의 흑암 중에 갇혀 형벌을 받고 있다고 설명한다.⁴⁷ 악한 천사들이 당하는 이런 현재적 심판은 미래적 심판을 예기한다.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설명하기 위해, 또 그들이 몸으로 선과 악을 행했던 간에 그들의 행한 일에 따라 보응 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후 5:10; 전 12:14; 롬 2:16; 14:10, 12; 마 12:36-37). ‘하나님의 심판대’(롬 14:10)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인데(고후 5:10),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기 때문이다(롬 2:16). 그 ‘심판날’(마 12:36)에 ‘심판’(전 12:14; 롬 2:16)을 받는 자들은 자신의 행실을 ‘직고’할 것이다(롬 14:12). 증거구절들은 내용을 서로 보완하기에 적절하다.

WCF 33:2에 따르면, 최후심판 날이 결정된 목적은 선택된 자들의 영원한 구원에 있어서는 주님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한 악하고 불순종하는 버림받은 자들의 영원한 파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 때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 주님 보좌 앞에서 나오는 기쁨과 위로를 충만히 받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악인들은 영원한 고통에 던져져 주님의 보좌와 주님의 영광스런 권세로부터 쫓겨나 영원한 파멸로 형벌을 받을 것이다(마 25:21, 31-46; 행 3:19; 롬 2:5-6; 9:22-23;

46 참고. Garland, *1 Corinthians*, 203.

47 채영삼, 『베드로후서의 이해: 신적 성품과 거짓 가르침』(서울: 이레서원, 2017), 258; J. H. Neyrey, *2 Peter, Jud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3), 62, 197.

살후 1:7-10). 증거구절들은 최후심판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상호 보완한다. 감람산강화 중에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와 최후심판의 목적은 달란트비유(마 25:21)와 양과 염소의 비유(마 25:31-46)에 나타난다. 최후심판 이전에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지만(행 3:19)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된다(롬 2:5-6). 주권적인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기도 하고 긍휼의 그릇에게는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다(롬 9:22-23). 하지만 최후심판 날이 이르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벌을 받지만, 재림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θαυματοθῆναι*), 즉 공개적인 명예를 받으신다(살후 1:7-10; 참고. 시 68:35; 계 13:3).⁴⁸

WCF 33:3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장차 심판의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성도에게 확신시키신 것은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역경에 처한 경건한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벧후 3:11, 14; 고후 5:10-11; 살후 1:5-7; 눅 21:7, 28; 롬 8:23-25). 최후심판 때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을 기억한다면(벧후 3:10),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살아야 하며(벧후 3:11), 심판의 주님 앞에서 점과 흠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벧후 3:14).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박해와 환난을 받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얻지만,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을 가하는 악인들은 공의로운 하나님께 환난을 받을 것이다(살후 1:5-7).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인내하면서 몸의 완전한 속량을 소망 중에 기다린다(롬 8:23-25). 이상의 증거구절들은 상호보완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죄와 싸우고 역경 중에도 소망 중에 인내하도록 위로를 준다. 그런데 증거구절인 고린도후서 5:10-11에서 바울은 최후심판대에 설 것을 언급한 후에, 자신의 존재와 사역과 동기가 하나님의 승낙을 받을 뿐 아니라 고린도교회의 양심에도 분명하게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설명한다.⁴⁹ 따라서 바울의 이 진술은 최후심판이라는 미래의 종말론이 범죄를 주의하고 역경 중에 위로를 추구하라는 현재적 윤리를 견인해 간다는 내용과는 거리가

48 A. Johnson, *1 & 2 Thessalonians* (Grand Rapids: Eerdmans, 2016), 175; J. A. D. Weima, *1-2 Thessalonians*, BECNT (Grand Rapids: Baker, 2014), 477.

49 Harris,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409, 414.

있다. 또 다른 증거구절인 누가복음의 감람산강화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징조(눅 21:7)를 그리스도인이 최종적으로 속량을 받는 것과 잘못 연결한다(눅 21:28).⁵⁰

재림의 날짜를 알지 못하기에, 성도는 모든 육적 안도감을 떨쳐버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또 언제든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마 24:36, 42-44; 막 13:35-37; 눅 12:35-36; 계 22:20). 재림의 때는 성부의 결정 사항이므로, 아무도 알 수 없다(마 24:36). 그리고 재림은 성도의 일상에서의 구제와 같은 현재적 윤리를 촉진한다(마 24:42-44). 주님께서 돌아오시는 재림의 날을 알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경성해야 한다(막 13:35-37).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재림하시는 인자를 맞이하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눅 12:35-36).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가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성도는 마라나타를 외치며 주님의 최종 방문을 준비해야 한다(계 22:20). 증거구절로 채택된 공관복음과 계시록은 서로 보완하면서, 성도가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를 적절히 밝힌다.

3. 분석

WCF 32-33장에서 구약 증거구절은 5개인데, 구약 인용은 없다(창 3:19; 욥 19:26-27; 전 12:7, 14). 여기에 BC처럼 구약의 기독교적 해석이 나타나는가? 증거구절로서 적절하게 활용된 구약 본문들은 흠으로 창조된 인간이 죽어 흠으로 돌아감(창 3:19), 최후의 심판(전 12:7, 14), 그리고 부활(욥 19:26-27)을 지지하는 본문이기에 구원계시의 발전을 고려한 기독교적 해석을 찾기는 쉽지 않다.

WCF 33장에서 요한계시록의 증거구절은 33:3에만 한 번 나타나는데 계시록 22:20을 인용한다. 따라서 BC의 종말론과 비교하면 계시록 구절 사용은 빈도가 낮다. 이유는 웨스트민스터 총대들의 종말론에서 천년왕국설과 같이 논쟁적

⁵⁰ Edwards,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595, 608.

사항들은 포함하기를 지양하고 중요한 교리적 사항들만 소개했기 때문이다.⁵¹ 증거구절로 종종 활용된 감람산강화의 해석은 정확한가?(마 24:36, 42-44; 25:21, 31-46; 막 13:35-37; 눅 21:7, 28). 재림의 때를 모르므로 경성해야 함(마 24:36, 42-44; 막 13:35-37)과 악인들이 받을 형벌과 파멸은 정확하다(마 25:21, 31-46).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미래 종말론과 잘못 연결한 점은 시정되어야 한다(눅 21:7, 28).

V. 비교 및 결론

아래의 도표는 세 신앙고백서의 종말론을 위한 증거구절의 통계를 요약한 것이다.

증거구절	BC 37	HC 57-58, 123	WCF 32-33
구약	총10개	총3개	총5개
오경	0개	0개	1개
역사서	0개	0개	0개
시가서	3개	3개	4개
선지서	7개	0개	0개
구약의 기독론적 해석	매우 드물 (사 66:5)	없음	없음
신약	총56개	총12개	총47개
감람산강화	8개	0개	7개
복음서	10개	2개	7개

51 참고로 WCF가 작성될 무렵 영국에서 종말론에 대한 열기는 뜨거웠으며(예. 천천년주의자인 트위세; 후천년자인 존 오웬), WCF가 작성되기 전인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반에 유럽에 개혁주의자들 중에 천천년설을 지지하는 이들이 활동했다(예. 조셉 미드, 요한네스 피스카토로, 하인리히 알스테드). J. V. Fesko, 『역사적, 신학적 맥락으로 읽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The Theology of the Westminster Standards*, 신윤수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8), 494-95.

(감람산강화 제외)	(요 5:29[x2])		
사도행전	3개(17:31[x2])	0개	6개
바울서신	16개 (롬 4:5[x2]; 고전 4:5[x2]; 고후 5:10[x2]; 살후 1:7[x2]; 1:6-8[x2])	8개	20개 (고전 15:43([x 2]); 고후 5:10[x2]; 살후 1:7[x2])
일반서신	10개 (히 6:2[x2]; 9:27[x2]; 유 1:15[x2회])	0개	6개 (유 1:6[x2])
요한계시록	9개	2개	1개

위의 통계를 분석하면, 구약 증거구절은 대부분 시가서를 의존하며, 오경은 단지 1회에 그치고 역사서는 아예 없다. 그런데 BC 37조는 구약에서 선지서를 가장 많이 의존한다. BC 37조에서 구약의 기독교적 해석은 이사야 66:5에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의 대의는 성부의 독생자를 위한 대의라고 밝힌 대목에 한 번 나타난다. HC 57문답은 욥기 19:25-26을 통해 기독교적 교회론, 다시 말해,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과 유사한 성도의 부활을 설명한다. 그런데 이 욥기 본문은 부활을 언급할 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아니며, 죽은 몸과 산 영혼의 결합도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HC 57문답은 본문의 의도를 넘어 과도하게 읽어 기독교적 교회론을 소개하는 문제점을 노출한다. 이런 현상은 WCF 32장의 욥기 19:26-27 활용에도 나타난다.

세 신앙고백서는 공통적으로 구약보다는 신약 본문을 압도적으로 활용한다. 신약 증거구절의 경우, BC 37조는 해석상 논란이 되기 쉬운 감람산강화와 계시록을 비롯하여 바울서신과 일반서신을 자주 사용한다면, WCF 32-33장은 사도행전과 바울사신을 종종 활용한다. HC 57-58, 123문답의 신약 증거구절은 빈약한데, 바울서신을 주로 활용하지만, 계시록은 단 두 번에 걸쳐 미래적으

로 해석한다. HC는 계시록처럼 감람산강화는 해석상 논란이 되기에 아예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므로 HC와 WCF보다 BC는 감람산강화와 요한계시록을 활용하는데 자신감을 보였지만, 그 증거구절들의 문맥과 AD 1세기의 성취를 간과한 채 미래적 해석으로 일관하는 한계를 보였다.

세 신앙고백서는 바울서신을 가장 애용하는데, 이 셋이 모두 활용하는 공통된 본문이 없다는 사실은 다소 의아하다. 하지만 바울서신에서 BC 37조와 HC 57-58, 123문답의 공통 본문은 2개뿐이며(고전 2:9; 15:53), HC 57-58, 123문답과 WCF 32-33장의 공통 본문도 2개뿐이다(고후 5:6; 빌 1:23). 하지만 바울서신에서 BC 37조와 WCF 32-33장의 공통 본문은 9개에 이른다(롬 2:5-6, 16; 14:10, 12; 고전 15:42, 51-52; 고후 5:10; 살후 1:5-7, 8). 그리고 BC와 WCF의 공통본문은 감람산강화는 5회(마 24:36; 25:31, 34, 41-46; 눅 21:28), 복음서는 2회(마 12:36; 요 5:28-29), 그리고 사도행전은 1회이다(17:31). 따라서 여기서 대륙의 개혁교회와 일치를 표방했던 WCF가 약 83년 전에 작성된 BC를 참고했을 가능성을 찾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세 신앙고백서의 증거구절 사용에 나타난 특징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구약 증거구절의 경우 인용은 거의 없다. 대신 구약의 단락을 암시하여 활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런데 구약의 단락 암시를 활용할 때, 곧장 최후심판과 부활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에,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기독교적인 점진적 계시 발전을 찾아보기 어렵다.

(2) 세 신앙고백서 가운데 증거구절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⁵² BC를 중심으로 감람산강화와 요한계시록은 미래적으로 해석된다. 이 사실은 앞에서 다룬 구약 증거구절의 문제점과 유사하다.

(3) 해석상 논란이 심하지 않는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그리고 일반서신의 증거구절의 경우, 문법-역사적 해석을 통하여 문맥을 적절히 고려한다.

(4) 세 신앙고백서에 영향을 주었을 법한 칼빈의 『기독교강요』(1559) 3권 25장의 최후의 부활이라는 미래 종말론에 나타난 증거구절들은 43개로 풍성하

52 HC 57-58, 123문답의 분량은 다른 고백서들의 종말론 해설과 비교할 때 적기에, 성경 증거구절 15개는 빈약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욥 19:25-27; 시 68:20; 사 25:8; 26:19; 66:24; 단 12:2; 호 13:14; 마 3:12; 8:12; 10:28; 19:29; 22:13; 25:32; 막 9:43; 눅 23:43; 요 5:28-29; 6:39; 행 14:22; 17:32; 24:15; 롬 8:19, 22-23; 고전 6:13-14; 13:12; 15:13-14, 23, 52-55; 고후 5:1, 8; 빌 3:8, 13, 20-21; 골 3:3-4; 살전 4:15-16; 살후 1:6-7, 9-10; 딤후 1:18; 4:8, 14; 히 9:28; 벧전 1:8-9; 요일 3:2; 유 1:6).⁵³ 그런데 칼빈은 여기서 구약 오경과 역사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증거구절로 전혀 활용하지 않고, 감람산강화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 가운데 위에서 살핀 이 세 신앙고백서에 활용되지 않은 본문은 무려 27개에 달한다(시 68:20; 사 26:19; 66:24; 호 13:14; 마 3:12; 8:12; 10:28; 19:29; 22:13; 25:32; 막 9:43; 요 6:39; 행 14:22; 17:32; 롬 8:19; 고전 6:13-14; 13:12; 15:13-14, 23; 빌 3:8, 13; 골 3:3-4; 딤후 1:18; 4:8, 14; 히 9:28; 벧전 1:8-9).⁵⁴

이 글에서 살핀 개혁신앙의 신앙고백서들에 나타난 성경 증거구절은 그 당시 성경해석의 경향을 보여주는데, 오늘날 발전된 성경해석에서 보더라도 간과할 수 없는 정도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세 신앙고백서의 종말론은 대체로 주님의 재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이지만, 그리스도 사건으로써 실현된 종말론을 더 선명히 진술할 필요가 있고, 성경 증거구절 사용에 첨삭이 필요하다.

53 J. Calvin, 『1559년 라틴어 최종판 직역 기독교강요』,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문병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20), 797-830. 참고로 칼빈과 루터는 자신의 교리문답서에서 사도신경의 부활과 영생을 설명하면서 성경 증거구절을 제시하지 않는다. J. Calvin, 『갈베의 요리문답』, *Les Catéchismes de L'Église de Geneve*, 한인수 역 (서울: 도서출판 경진, 1995), 68-70; M. Luther, 『대교리 문답』, *Der Große Katechismus*, 최주훈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17), 224.

54 감람산강화를 증거구절로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WCF 32-33장과 『기독교강요』(1559) 3권 25장은 무려 11개를 공유한다(욥 19:26-27; 요 5:24-29; 행 24:15; 롬 8:23; 고전 15:52; 고후 5:1, 8; 빌 3:21; 살후 1:6-7, 10; 유 1:6).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감람산강화를 적극 활용한 BC 37조와 『기독교강요』(1559) 3권 25장은 10개를 공유한다(욥 19:26-27; 요 5:28-29; 행 24:15; 롬 8:23; 고전 15:52; 고후 5:1, 8; 빌 3:21; 살후 1:6-7; 유 1:6). 그러나 요한계시록과 감람산강화를 적극 활용하지 않은 HC 57-58, 123문답과 『기독교강요』(1559) 3권 25장은 3개만 공유한다(욥 19:25-26; 눅 23:43; 고전 15:53). 그런데 각 신앙고백서의 증거구절 수에 비추어 공유 구절을 검토하면, WCF는 21%, HC는 20%, 그리고 BC는 6%의 일치를 보인다.

[참고문헌]

- Baker, D. W. *Joel, Obadiah, Malachi*. Grand Rapids: Zondervan, 2006.
- Beeke, J. R. and Ferguson, S. B. ed. *Reformed Confessions: Harmonized with an Annotated Bibliography of Reformed Doctrinal Works*. Grand Rapids: Baker, 1999.
- Bock, D. L. Acts. BECNT. Grand Rapids: Baker, 2007.
- Bouwman, C. 『벨직신앙고백해설』. *Notes on the Belgic Confession*. 손정원 역. 부산: 도서출판 신언, 2007.
- Calvin, J. 『1559년 라틴어 최종판 직역 기독교강요』.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문병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20.
- _____. 『갈뎡의 요리문답』. *Les Catéchismes de L'Eglise de Geneve*. 한인수 역. 서울: 도서출판 경건, 1995.
- Coetsee, A. J. "The Book of Hebrews and the Reformed View of Scripture: Hebrews echoed in Belgic Confession Articles 2-7." *In die Skriflig* 54/2 (2020), 1-10.
- Derickson, G. W. *1, 2 & 3 John*. EEC. Bellingham: Lexham Press, 2014.
- Du Rand, J. A. *A-Z van Openbaring*. Vereeniging: CUM, 2007.
- Edwards, J. 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Grand Rapids: Eerdmans, 2015.
- Elliott, J. H. *1 Peter*. Anchor Bibl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 Ellingworth, P. *The Epistle to the Hebrews*.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93.
- Fesko, J. V. 『역사적, 신학적 맥락으로 읽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The Theology of the Westminster Standards*. 신윤수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8.
- Fitzmyer, J. A. 『로마서』. *Romans*. 김병모 역. 서울: CLC, 2015.
- France, R. T. *The Gospel of Matthew*. NICNT. Grand Rapids: Eerdmans, 2007.
- Garland, D. E. *1 Corinthians*. BECNT. Grand Rapids: Baker, 2003.
- Gentry Jr., K. L. *The Divorce of Israel: A Redemptive-Histor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Revelation*. Volumes 1-2. Dallas: Tolle Lege, 2017.
- Gootjes, N. H. "Problems with Proof Texts: The Proof Texts of Article 11 of the Belgic Confession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Confession."

- Calvin Theological Journal* 36/2 (2001), 372-78.
- Greidanus, S.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Preaching Christ from the Old Testament*. 김진섭 외 역. 서울: 이레서원, 2003.
- Green, G. L. *Jude & 2 Peter*. BECNT. Grand Rapids: Baker, 2008.
- Harris, M. J.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05.
- Jobes, K. H. *1, 2, & 3 John*. ZECNT. Grand Rapids: Zondervan, 2014.
- _____. *1 Peter*. BECNT. Grand Rapids: Baker, 2005.
- Johnson, A. *1 & 2 Thessalonians*. Grand Rapids: Eerdmans, 2016.
- Keating, D. *First and Second Peter, Jude*.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1.
- Keener, C. S. *Acts*. Volume 1. Grand Rapids: Baker, 2012.
- Koester, C. R. *Revel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4.
- Leithart, P. J. *Revelation 1-11*. London: T&T Clark, 2018.
- _____. *Revelation 12-22*. London: T&T Clark, 2018.
- Lion-Cachet, F. N. “Die Christusgetuienis in die Ou Testament: 'N Belydeniswerklikheid.” *In die Skriflig* 25/1 (1997), 97-113.
- Longenecker, R. N. *The Epistle to the Romans*.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16.
- Longman III, T. *Daniel*. Grand Rapids: Zondervan, 1999.
- Luther, M. 『대교리 문답』. *Der Große Katechismus*. 최주훈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17.
- Neyrey, J. H. *2 Peter, Jud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3.
- O'Brien, P. T. *The Letter to the Hebrews*. Grand Rapids: Eerdmans, 2010.
- Oswalt, J. N. 『이사야』. *Isaiah*. 장세훈·김홍련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7.
- Provan, I. *Ecclesiastes/Song of Songs*. Grand Rapids: Zondervan, 2001.
- Schreiner, T. R. *Romans*. BECNT. Grand Rapids: Baker, 1998.
- Smick, E. B. “Job.” *In 1 Chronicles-Job*. Edited by T. Longman III and D. E. Garland. Grand Rapids: Zondervan, 2010: 675-921.
- Strauss, S. A. “John Calvin and the Belgic Confession.” *In die Skriflig* 27/4 (1993), 501-517.

- Thiselton, A. C.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00.
- Ursinus, Z.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The Commentary of Dr. Zacharias Ursinus on the Heidelberg Catechism*. 원광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6.
- Van Bruggen, J.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Aantekeningen bij de Heidelbergse Catechismus*. 김현수·성희찬 역. 서울: 성약, 2020.
- VanGemeren, W. A. *Psalms*, Grand Rapids: Zondervan, 2008.
- Van Rooy, H. F. “Die Gebruik van die Ou Testament in die Belydenisskrifte, Hermeneuties Beoordeel.” *In die Skriflig* 25/1 (1991), 29-46.
- Weima, J. A. D. *1-2 Thessalonians*. BECNT. Grand Rapids: Baker, 2014.
- Zuiddam, B. A. “Openbaring en Ervaring: ’N Reformatories-Konfessionele Benadering van 2 Petrus 1:16-21.” *In die Skriflig* 50/2 (2016), 1-7.
- 강미랑.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교육을 통한 개혁주의 종말신앙 형성.” 『개혁논총』 30 (2014), 263-95.
- 송영목. “교부들의 요한계시록의 주석 평가: 빅토리누스와 오이쿠메니우스를 중심으로.” 『ACTS 신학저널』 50 (2021), 130-88.
- 양용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6.
- 오성호. 『56-66장을 중심으로 본 이사야서의 종말론 신학』. 서울: 솔로몬, 2012.
- 이상웅. “벨직신앙고백서의 역사적 배경과 37조에 담긴 종말론.” 『개혁논총』 36 (2015), 105-143.
- _____.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종말론.” 『한국개혁신학』 44 (2014), 152-77.
- 채영삼. 『베드로후서의 이해: 신적 성품과 거짓 가르침』. 서울: 이레서원, 2017.

[Abstract]**A Comparison of the Use of the Biblical Proof Texts in the Belgic Confession, the Heidelberg Catechism, and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Focused on Eschatology**

Young Mog Song

(Kosin University, Professor, New Testament)

When Christians read the Bible properly, they will trust in God and through the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they will believe the authority of the Bible (Belgic Confession 5 [1561]). However, there are cases where the proof texts in the confessions that summarize the Bible are inaccurate. For this reason, systematic theological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the proof texts indicated in the margin text of the confession are accurate and what texts are implied even if there are no explicit verses of the Bible. In addition, Old Testament scholars have reviewed the validity of the proof passages through exegesis.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related studies by New Testament scholars, and this phenomenon is surprising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doctrine of the confession is more closely related to the New Testament than the Old Testamen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e of biblical proof texts in the Belgic Confession, the Heidelberg Catechism (1563), and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1646) through biblical exegesis. For convenience, the scope of the study is limited to the eschatology of the three confessions of faith.

Key Words: Belgic Confession,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Heidelberg Catechism, proof text, eschatology, comparison